

(2025년 12월 9일)

## 연금연구회 긴급 성명서

<2025년 12월 9일 수신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>

### 연금연구회는

연금연구회 상임고문(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)

연금연구회 리더(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)

환율방어를 위해 “국민연금기금으로 외화채를 발행해서는 절대 안된다!!!”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합니다.

문의처: 연금연구회 사무국장단

- (사무국 1국장) 김학주 동국대 교수(010-2788-9973)
- (사무국 2국장)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(010-3616-4895)
- (사무국 3국장) 박명호 홍익대 교수(010-9316-9751)
- (사무국 4국장) 김상철 한세대 교수(010-4524-6557)

## 연금연구회 성명서 (2025.12.09.)

- 정부는 왜?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내몰고 있는가! -

우리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달 성실히 모아 온 노후의 저금통이다. 젊을 때부터 조금씩 넣어, 나이 들면서 더이상 일하기 어려울 때의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버팀목이다!! **누구의 것도 아닌, 오롯이 국민 자신의 돈이다.**

그런 국민연금을 **정부가 환율을 막겠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방안을 꺼내 들고 있다는 소식에, 연금연구회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!!** 이는 단순한 기금운용 방식의 문제가 아닌, 국민의 노후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.

정부는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. 이미 국채를 발행할지라도 그 절반은 새로운 정책이나 투자에 쓰이지 못하고, **과거 빛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대로 사라지고 있다.** 가계 상황에 비유하자면, 월급의 절반을 이미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빚을 내려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. 문제는, **그 대출을 갚기 위해 왜? 정부가 자기 지갑이 아니라 국민의 저금통에 손을 대려 하느냐는 것이다!!** 국민연금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을 때 꺼내 쓰는 비상금이 아니다.

국민연금은 그동안 한 번도 “돈이 부족하다”며 빚을 낸 적이 없다. 국민이 맡긴 돈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불러 왔을 뿐이다. 그런데 이제 와서 외화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, **국민연금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외환 정책이 필요해서 이젠 연금까지 동원하겠다는 말과도 같다.** 남의 노후자금을 담보로 “**은행에 갚지 않아도 될 대출을 받아 쓰겠다**”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. 이는 연금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원칙인 **안정성과 신뢰를 흔드는 선택이다!!**

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, 정부가 최근의 고환율 상황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. 이것은 집값이 오르자, 오랫동안 성실히 적금에 꾸준히 돈을 넣어 온 가장에게 “**당신이 저축을 많이 해서 물가가 오른 것**”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.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하루아

침에 이루어진 투기적 선택이 아니다. 수십 년 뒤를 대비해 위험을 나누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**중장기 전략**인 것이다. 해외 주요 연기금들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!! **환율 불안의 복잡한 원인을 외면한 채, 가장 만만한 국민연금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!!**

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두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며 성과를 자찬했다. 그런데 환율 상황이 나빠지자, 그 해외투자가 순식간에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. **잘될 때는 공을 가져가고, 상황이 나빠지자마자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이 같은 모습은, 정책이 아니라 변명이다. 정부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!! 국민 노후를 맡긴 제도는 더욱 그래야만 한다!!**

환율을 안정시키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.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책임지는 권한이 있는 곳도,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곳도 정부다. 그 책임을 대신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외화 빚을 지우고, 환율과 금리 변동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떠안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.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희생시켜도 되는 돈이 아니다. **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, 마지막까지 지켜 주어야만 하는 사회 안전망이다.**

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는 방패로 사용되는 순간, 연금제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라 판단한다!! 국민연금은 환율을 막기 위한 방파제가 아니라,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울타리다. **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,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장기적 안정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!!**

연금연구회는 국민이 평생 모아 온 노후자산이 정부 정책의 부담을 떠안는 일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.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, 오로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!!!!

2025년 12월 9일

연금연구회